No. 662

失鄕私民(拉致者)安否探知申告書

拉致者의 本籍	京畿道利川郡利川邑松亭里壹佰拾番地					
拉致者의 住所	上　同					
拉致者의 姓名	국문 한명수	한문 韓英洙	영문 Han young Su		性別	男
生年月日	西紀1911年12月17日生	最終職業	農業. 大韓青年團員			
拉致者의 拉致場所	京畿道廣州郡東部面豊山里					
申告者의 姓名	국문 한상훈	한문 韓相勳	영문 Han sang hun		拉致者와의 關係	父
申告者 住所	京畿道利川郡利川邑松亭里壹佰拾番地					

失鄕(拉致)場所 및 失鄕(拉致)事項

西紀1950年7月12日午後6時頃 利川郡利川邑松亭里에서 所謂本邑同里民青員 5.6人에게 拉致當함 그後 利川邑內警署. 現稅務署建物에 收容된後 收容된지 20日後 仁川上陸무렵 夜間에 水原을 經由하여 서울로 추럭으로 護送되었든바 無消息이였으나. 我軍이 進擊時 同護送 당한중 한사람이 탈출하여 도라왔음 그사람에게 알어본즉 同年9月8日頃 서울出發 步行으로 鐵原方面까지 致着하매 어떤 倉庫에 收容시킨後 平壤까지 步行으로 가지못할사람은 남으라 하드니 數名이 못가겠다 하니까 銃殺시켰다 함 그러나 本人 結果 拉致者는 그때까지도 살어 있는 것은 보았으나 그후 붙어는 모른다 함 그사람은 現在 살어와서 있는데 그때에 身体가 健康한 者는 護送당하였을것이라고 함